

[문항]

가) 친구 승미와 함께 축제 행사를 준비하느라 과학실을 사용하였다. 행사 준비를 다하고 나오면서 과학실 문이 고장이 나서 잠기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비 아저씨를 찾았지만 ‘한 시간 이후에 옵니다’ 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신 상태다. 승미와 나는 1년에 한번 하는 유명한 강사의 1시간 특강을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승미는 과학실 문을 열어 둔 채 그냥 가자고 한다. 과학실에는 고가의 실험 기구와 취급에 주의해야하는 시약 재료가 있어 평소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나) 2학기 기말고사 하루 전날 창체 시간에 동아리 활동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 1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의예과를 준비하는 나는 기말고사 준비로 힘든 상황이다. 동아리 활동은 4명의 조원이 학교 선생님 한 분을 인터뷰하여 발표하는 것인데, 아직 질문 내용과 선생님을 만나 될 일정도 정하지 못하였다. 1학기 때에도 기말고사 전 동아리 활동에서 같은 조원들이 시험 전이라고 동아리 발표 준비를 하지 않았다.

[문항]

지원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 검사를 담당하는 보건 지소에서 3개월째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지원자를 제외하고 자원봉사자 2명, 자원봉사팀장 1명, 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직원 1명이 하루 검사자 200명의 검사 및 결과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조금 전 자원봉사팀장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들었다.

이 때,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 1) 대기줄에서 시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음
- 2) 인근 회사 직원 50명이 의심 증세로 갑자기 단체 검사를 요청함
- 3) 어제 검사하고 가신 86세의 어르신이 오늘 다시 내원하여 두리번거리고 있음

[문항]

가) 우리나라의 필수, 공공, 지역 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의 개선안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에 제안되었다가 무산된 ‘공공의대’는 지역의 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기르려고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 의무복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로 둘 다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제도였다. 이 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있다.

나) 지난 해 전공의 지원율은 내과(111.4%)만 정원 대비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나, 그 외 주요 전공과목의 지원율은 산부인과(71.9%), 외과(65.1%), 소아청소년과(16.3%), 응급의학과 (85.2%)로 낮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전공 과목들은 필수 의료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원자 미달로 앞으로도 적절한 수의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인으로는 의료 소송, 수익의 차이, 업무의 강도 등이 거론된다.